

## 해양과 바다의 명칭: 유엔의 관점에서

Peter E. Raper

(UN지명전문가회의 의장)

지명의 복잡함으로 인해 UN은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해 UN경제사회협의회 7분과 중 하나인 UN지명전문가그룹을 창설하였다. 여기에서는 매 3년마다 지명표준화에 관한 UN회의가 열린다. 이 회의에서는 문제들을 숙고하고, 해결책을 찾으며 결의문을 채택한다. 그 결과 국가간의 상호이해가 촉진되고 평화를 증진하게 되고 다른 사회, 경제적인 이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.

몇몇 결의안은 둘 내지 그이상의 나라들이 접하고 있는 지리 형상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. 그 중 제3차 UN지명표준화회의 결의안 20조는 다음과 같다: “회의는 . . . 만약 어느 지리형상을 함께 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. . . 하나의 지명으로 고정하는데 합의하기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추천한다; 만약 하나의 공통 이름으로 합의하는데 이르지 못할 때에는 관련된 각 나라들이 쓰는 지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국제간 지도작성법의 규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.” 이 결의안에 따르자면 세계에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하기까지 동해와 일본해라는 지명을 모두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.